

대연정 관련 기자간담회

- 대연정 제안의 의미 -

“선거제도 개혁, 대연정의 진정한 의미”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 편지에 하도 자세하게 써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글자 한 자 한 자에 의미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쓴 글이니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지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의미의 차이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쓴 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지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하고 또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반응을 보면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또 과연 우리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무슨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나 뭐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게임으로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정, 대연정하니까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열 구조, 지역주의 해체하자”

정권 준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반가워 할 줄 알았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정당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정권입니다.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살림에 대해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죠. 그것을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정권이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고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 왜 선거구도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국의 요인 또는 역사발

전의 결림돌들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입니다.

지배층의 분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또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개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